

# 영화 · 음악의 만남 ‘나래코리아 콘서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야제 콘서트 29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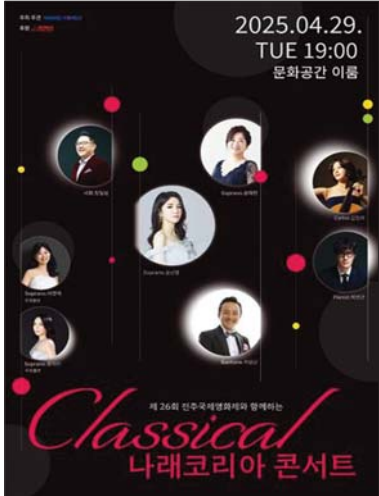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알리는 전야제 콘서트가 오는 29일 오후 7시 전주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념해 나래코리아가 매년 기획하는 시민 참여형 음악 회로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첼리스트 김인하를 비롯해 소프라노 송난영,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송애란, 이영재(우정 출연), 장지선(우정출연) 등이 출연하며, 진행은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맡는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영화 ‘인생선’에 삽입된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regrette rien’, 엔니 오 모리코네의 ‘시네마천국’ 주제곡,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능 박사’,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 백조’,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흥남파의 ‘볼처녀’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전주 시내 일대에서 열린다. 2000년 시작된 영화제는 국내외 독립·예술영화를 조명하며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나래코리아 콘서트 포스터

올해도 ‘자유·독립·소통’을 주제로 국제경쟁, 한국전쟁, 단편전쟁 등 다양한 색션을 통

해 신진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제작부터 상영까지 전주시가 직접 참여하는 독창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각국 감독들과의 협업을 통해 영화 예술의 실험성과 창작 생태계를 뒷받침해왔다.

‘전주 프로젝트’ 역시 영화 기획부터 투자 유치까지 아우르며 영화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창작·유통·산업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영화 생태계의 허브로 성장 중이다.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는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전주는 전통문화와 현대 영화가 어우러진 영화 도시로 변모한다”며 “전야제 콘서트는 영화제의 시작을 여는 무대로,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이룸 아트홀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는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전야제 음악회를 개최하여 전주시민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익산예술의전당, 신귀복 가곡 음악회 27일 개최

한국 음악계의 산증인인 신귀복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봄날 익산을 물들인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신귀복 가곡 음악회 ‘가곡의 별’을 오는 27일 오후 3시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신귀복 작곡가는 가곡의 대중화와 한국 음악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국민 가곡 ‘얼굴’을 비롯해 지금까지 가곡, 동요, 독주곡 등 총 700여 곡을 작곡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한국서정가곡작곡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음악계 발전

을 이끌었으며 △한국아동음악상 본상(1990년) △대한민국동요대상(2000년) △세일 한국가곡상(2016년) △큰바위예술상(2018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공연에는 JTBC ‘팬텀싱어’ 출연으로 인기를 얻은 크로스오버 그룹 ‘레테아모르’가 출연한다. 깊이 있는 음색의 베이스비리톤 길병민, 팔색조의 음악을 선보이는 크로스오버 가수 박현수, 감미로운 목소리의 뮤지컬 배우 김성식이 신귀복 작곡가의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유럽의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소프라노 김제니가 깊이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공연의 수준을 한층 높일 30인조 와이엘오페스트라가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하며, 뮤지컬 및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퍼포먼스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까지 더해져 무대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전석 3만 원이다. 예매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남원시,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 30일 개관

남원시가 오랜 기간 방치됐던 구 비사벌 콘도 부지를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으로 탈바꿈해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맞춰 오는 30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달빛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총 119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이며, 미디어아트 실증시설 ‘피오리움(Florium)’을 중심으로 구성된 3.829㎡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남원의 문화 자원에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예술 플랫폼으로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문화 쉼터로 조성되었다.

핵심 전시관인 피오리움은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을 주제로 물입형 미디어 전시와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남원의 자연, 역사, 서정성을 디지털 감성으로 재해석,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감각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의 예술은 ‘감각의 확장’, ‘정서적 몰입’, ‘지역 정체성의 재발견’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으며, 달빛으로 열리는 감성의 문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선 이곳은 관람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감각과 상



상력이 흐르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한다.

최경식 시장은 “달빛정원과 피오리움은 남원의 감성과 문화적 깊이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문화적 영감을 경험하고 남원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내 유일 장르 단편영화제 귀환

‘미장센단편영화제’ 4년 만에 재개



2021년 제20회 영화제를 끝으로 잠시 휴식을 가졌던 미장센단편영화제가 4년만에 관객을 만난다.

이에 따르면 미장센단편영화제는 2002년 집행위원장 이현승 감독을 필두로 한국영화산업을 이끄는 현직 감독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감각의 영화를 발견하고 지원하고자 시작된 국내 유일의 장르 단편영화제다. 사회 드라마, 코미디, 액션 스릴러, 멜로, 공포 판타지 등 장르적 특성을 가진 색션으로 주목받았던 미장센단편영화제는 영화 ‘명량’의 김한민, ‘국상’의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의 윤종빈, ‘미쓰홍당무’의 이경미 등 국내를 대표하는 스타 감독들과 구교환, 김고은, 안재홍, 정유미, 최우식, 한예리 등 스타 배우들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상업영화계의 등용문’으로 불렸다.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제21회 미장센단편영화제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감독 7인이 영화제의 새로운 집행부로 나서 눈길을 끈다. 엄태화 <콘크리

트 유토피아>, 윤가은 <우리들>, 이상근 <엑시트>, 이육섭 <메기>, 장재현 <파묘>, 조성희 <슬리프>, 한준희 <D.P.> 감독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미장센단편영화제를 통해 감독 데뷔의 기회를 얻었거나 단편 창작을 통해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제21회 미장센단편영화제는 지난 18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영화제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시각화한 로고를 공개했다.

올해 영화제의 주관사는 씨네21(주)(대표이사 장영업), 메인 후원사는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다.

/장은성 기자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색션 ‘호루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이벤트 공개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색션 <호루몽>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호루몽>은 일제강점기 당시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과 그들의 후손인 재일 한국인(자이니치)의 투쟁과 연대를 담은 영화다. 영화의 제목 ‘호루몽’은 ‘버리는 것’이라는 어원을 가진 일본어로 고향구이를 의미한다. 영화는 자이니치 3세이자 성공한 사업가 ‘신숙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녀가 2000년 도쿄 시장의 극우 망언을 계기로 사회활동가로 변모해 향한 헤이트 스피치에 항거하는 ‘노리코에(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관련 법안 입안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신숙옥의 어머니 ‘케이코’와 할머니 ‘이백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재일 한국인 3대의 현대사를 한복일을 넘나들면서도 담백하게 그려 영화적 가치에 더해 역사적 가치까지 기대되는 작품이다.

<호루몽>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린을 통해 총 4회 상영되며, 제작진 및 출연자는 프로그램 이벤트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벤트로는 5월 1일과 3일 관객과의 대화(GV)가, 5월 3일에는 ‘전주독특 1 <호루몽> 그녀들이 만든 역사, 영웅이 된 여성들’이 예정돼 있다.

전주독특은 영화제 관련된 혹은 영화인들이 현장 경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재로 관객과 가벼운 수다를 나누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토크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주객시에 위치한 원스타임오프 쇼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주프로젝트 박태준 총괄 프로듀서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색션 상영작으로 <호루몽>을 소개하며 “그동안 사회, 인간, 관계, 역사, 다양성 등 여러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작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